

미호의 고산(孤山)과 윤선도의 정원

유가현* ·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머릿말

예부터 정원은 인간이 바라고자 하는 이상향을 표현하고, 현실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별세계를 지향하는 곳이자, 도피처 혹은 성역화된 공간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정원은 그것을 지은 작정자(作庭者)의 가치관과 이념, 사상 등의 개인적 정서를 배경으로 하며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그들은 정원조영 및 감상 이외의 행위로서 서화(書畵)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는 시각적 사료로서 별서도와 산거도, 산수문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곧 자연과 정원의 풍광에 동화된 각인의 감상자들이 느낀 정경(情景)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원의 양식적 형태는 시대별, 지역별 혹은 작정자의 개성에 따라 그 원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일정한 분류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난해한 일일 것이다. 각 정원과 작정자가 추구하였던 사상 내지는 신념, 가치관 등은 정원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고산 윤선도와 그의 정원을 들 수 있겠다. 그는 해남과 보길도, 고산, 영덕 등지에 머물며, 산수로 찾아들어가 정원을 삼고 그 곳에 기거하며 다수의 시작(詩作)을 남겼다. 1994년 이후 발굴을 시작한 남양주의 고산은 일반적으로 윤선도의 호(號)로서 잘 알려져 있으나, 이전부터 이 지역의 독특한 경관에서 비롯된 고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온 곳이다. 이는 전해오는 다수의 문헌자료에서 고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산 윤선도를 비롯한 당대의 문사들은 이 지역에 집과 정원을 두고 기거하였는데, 특히 고산 윤선도는 여기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입하여 이를 호로 삼았다. 현재는 지형 및 하천 흐름의 변화로 인해 고산(孤山)이라는 장소를 실체화 시킬

수 있는 경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윤선도의 고산별서에 있던 촌사(村畵)와 정자, 료(寮) 등과 당대 선비들에 관련된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 형상과 규모를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해오는 사료를 통한 유지(遺址)의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 고산에 관련한 인물과 현재 남아 있는 유지의 원형을 읽어내어 고산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고찰함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윤선도라는 한 인물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II. 고산의 해석

고산이라는 지명은 중국 송나라 때의 기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송의 은둔 시인인 임화정, 곧 임포(林浦)는 매화를 벗 삼아 고산에 은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고산은 중국의 절강성 항주 전당강 서호에 인공적으로 세운 낮은 산을 말하며, 외롭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孤山이라 불렀다.

윤선도의 공신명으로 후대에 불리고 있는 '고산'이라는 호는 이곳 서호의 고산에 비유되던 옛 양주 독음지역의 경관에서 기인한다. 이곳은 홍수 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 그 곳을 감싸 흐르던 왕숙천과 북두천(지금의 홍릉천)의 물이 범람하여 평평한 구릉지형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으로 모여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 때 작은 산이 마치 바다 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孤山' 즉, 외로운 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이는 아마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문화적 학문적 교류의 시기를 살던 조선시대의 문사들이 중국의 이름난 시인이나 그와 관련한 장소에 연원을 두는 글을 짓고, 공덕을 기리는 등의 행위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남양주시 가운데에 그 묘소가 있는 호음 정사

룡(1491. 성종 22~1570 선조3)의 신도비를 보면 이곳 서호의 고산에 관한 경관을 묘사한 시문이 적혀 있는데, 이는 그의 시 「전당만망(錢唐晩望)」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이며, 고산이라는 시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전당만망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산 윤선도는 20세 승보시에 낸 시문의 시제를 「전당춘망(錢唐春望)」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서 이미 이때에 고산이라는 지역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시의 내용과 배경은 유사하며, 작품의 배경으로서 중국의 절강성에 있는 전당강 서호를 택하고 있다. 또한 동 시대의 문장가인 농암 김창협(1538~1605)의 문헌에서는 고산로(孤山路), 고산암(孤山巖) 등의 명칭이 쓰이고 있어 여러 문사들에 의해 이 지역은 예로부터 '고산'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고산 윤선도의 집과 석실서원, 명월정과 해민료가 있던 고산은 높은 산에서 줄기가 이어져 내려온 독립적인 봉우리를 이룬 산이다. 풍수지리 연구가 형상 정경연은 "천마산에서 출발한 주룡은 수리봉, 배나무골산으로 내려와 석실의 김번 묘의 주산을 기봉으로 하는데 태조산인 천마산의 험준한 기가 뺄리며 변화하여 탈살하며 깨끗하고 정제된 생기로 변화한다."라고 고산에 관해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서 이곳은 풍수상의 길지에 위치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고산은 두모포와 독음, 석실, 왕숙천 등의 공간범주를 가지므로 독음산이 위치한 강의 명칭을 미호(漢湖)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18세기 한강변 고산의 진경

표 1. 17세기 한강의 명칭 분류¹⁾

| | | | |
|-------|----|-------------------|----------------|
| 두모포지역 | 동호 | 미사리 일대의 동호-미호(漢湖) | 독음산 앞-독음강 |
| | | | 두모(부)포앞-두모(부)강 |
| 잠두봉지역 | 서호 | | |
| 용산강지역 | 남호 | | |

1. 겸재가 그린 두 점의 「미호도(漢湖圖)」 속의 고산

1741년 겸재 정선은 그의 나이 65세에 친교인 사천 이병연과 시화환상(詩畵換相)을 약속하며 한강변의 승경을 화폭에 담아내기에 이른다. 이렇게 겸재에 의해 남겨진 26폭의 한수주유도 중 두 점의 「미호도(漢湖圖)」에 고산의 풍경이 그려졌다. 각각 「삼주삼산각(三洲三山閣)」과 「석실서원(石室書院)」이라는 화제가 붙은 그림에는 고산 윤선도의 명월정과 해민료, 농암 김창협(1538~1605)의 삼산각, 석실마을과 서원, 왕숙천변의 초사(草廬)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미호(漢湖)라는 별칭을 한강을 주유하는 나룻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윤고산의 시에서 읊어진 것과 유사한 경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산의 경관을 묘사한 시

「신미춘삼월(辛未春三月)」

刺舟尋故園 배를 저어 옛 동산 찾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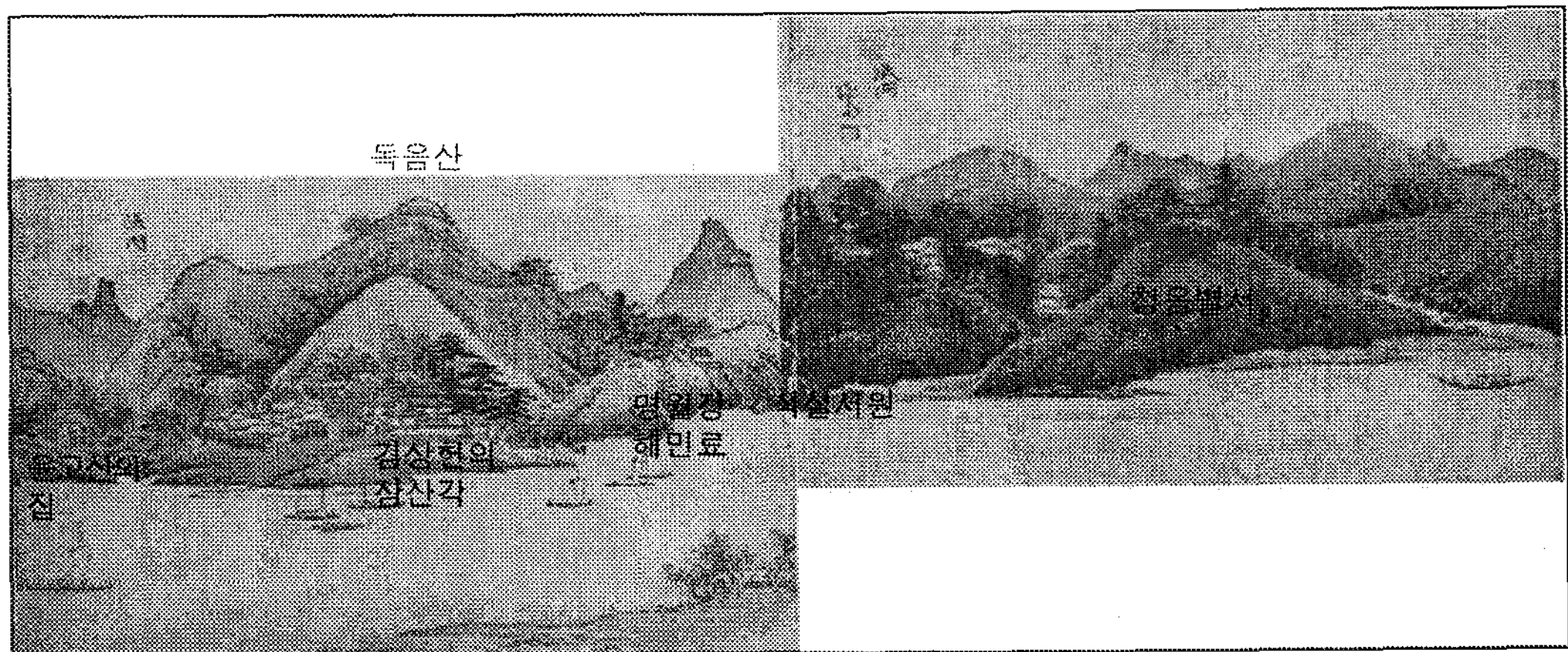


그림 1. 겸재정선(1741) 「삼주삼산각(좌)」, 「석실서원(우)」

山色正黃昏 산색이 벌써 해질 때 되어
 宮壺誇釣村 궁궐에서 내린 술을 낚시꾼과 나누면서
 仙樂動江村 아름다운 음악 강촌에 울리도다
 誰知三日樂 누가 알겠어 사흘간의 이 즐거움
 攄是九重恩 이 모두가 임금님의 은혜인 것을
 綜南長在眼 저 멀리 남산이 바라 보이는데
 還向上東門 돌아갈 땐 동문으로 들어가야지

「해민료우음(解悶寮偶吟)」

隱几山窓晴景晚 창 넘어 은계산에 맑은 경치 저무는데
 春風正是浴沂時 봄바람 부는 지금 물가에서 목욕할 때다.
 前灘遮莫輕帆過 앞 여울에 가벼운 범선 지나가는데
 閑看蒼松澗畔遲 한가롭게 푸른 솔 아래 흐르는 물을 보
 노라. -중략-

「고산독불항(孤山獨不降)」

滄浪便作青溟闊 큰 물결이 일어나 푸른 바다 같이 넓어져
 莫辨長郊與大江 큰 벌판인지 큰 강인지 분간 할 수 없구나.
 底事茲山不里沒 어찌하여 이 산 만은 침몰되어 잠기지
 않노고.
 千岡萬阜忽駢降 천 만의 작은 언덕들은 늘어서서 항복하
 듯 조회하네.

3. 고산에 자리하던 사대부의 정원

1) 고산 윤선도의 집과 정원

1615년 윤고산 28세에 양부 윤유기가 독포의 정자, 곧 명월정을 매입하였고, 그 후 향년 72세가 되던 해인 1659년에 명월정 앞에 해민료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산 사후 1741년 겸재 정선이 한강변의 승경을 선유하는 시각으로 그려냈고, 그 중 두 작품이 고산의 모습이 담긴 미호도이다. 그러므로 고산 윤선도의 집과 정자의 자리는 겸재 정선이 미호도를 제작한 시기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호도 중 「삼주삼산각(三洲三山閣)」에서 강변의 언덕 위에 두 개의 크고 작은 정자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석실서원의 문헌자료에서 서원 앞에 명월정이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이 중 하나가 윤고산의 명월정이며 그림 상에서 명월정의 오른쪽편에 위치한 작은 정자가 해민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민료는 초정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기와를 엮은 정자로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그림 좌측의 왕숙천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는 거칠피 언덕 부근에는 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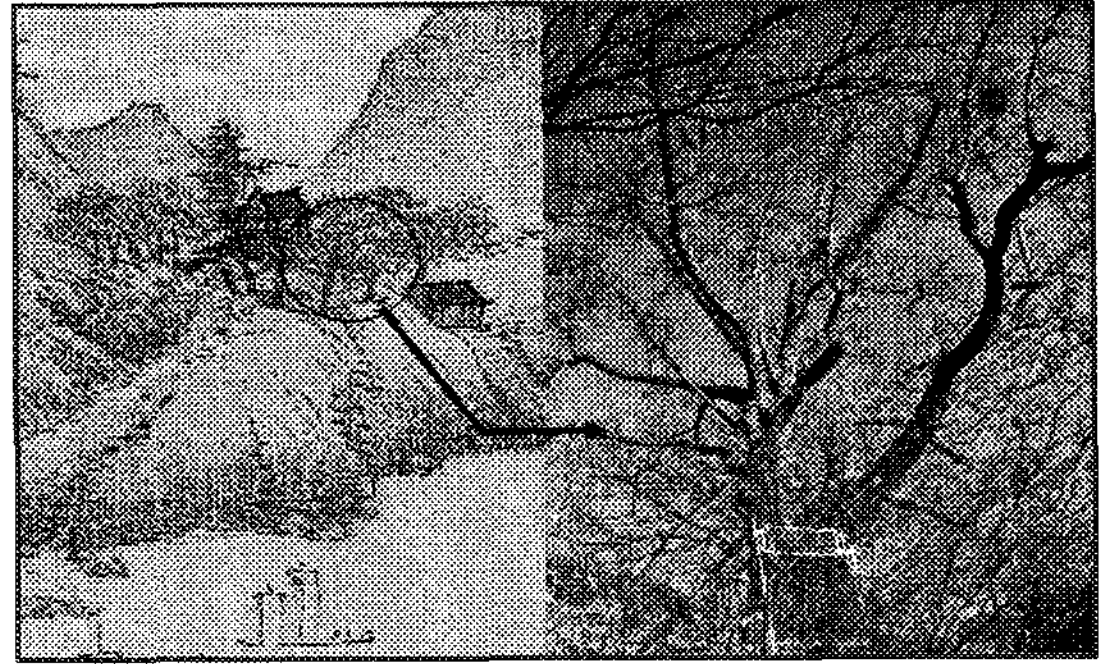


그림 2. 명월정이 있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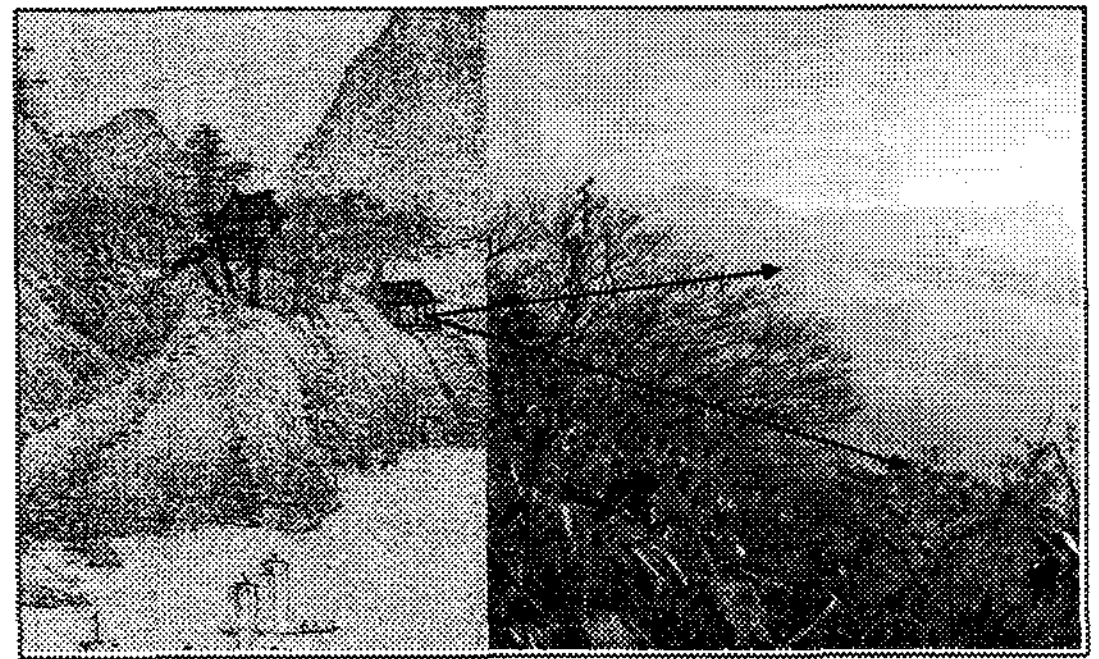


그림 3. 해민료지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본 한강

윤선도의 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석실서원과 삼산각, 청음별서

석실서원은 석실산인 청음 김상헌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고 이후 사액으로 지정된 서원이며, 이곳의 문헌자료에 “明月亭前立”라고 하여 서원 앞에 명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음을 적고 있다.

석실서원말에서 서남류하는 물길을 따라 한두 모퉁이를 돌아 내려오면 광릉, 사릉, 동구릉 쪽의 물을 모아 오는 왕숙천이 합류되는 의미음이 나온다. 이곳이 겸재의 스승 농암 김창협(1651~1708)이 터잡아 살던 곳인데, 농암은 이 앞에 모래밭이 세 군데 있다 하여 삼주(三洲)라 이름 짓고 삼산각(三山閣)을 지어 살았다 하였으니, 이 그림(삼주삼산각)의 중앙에 자리잡은 집이 바로 농암이 짓고 살던 삼산각일 것이다. 그림(석실서원)에서 보이는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서원말이다. 그 중에 숲 속에 둘러싸인 기와집들이 석실서원이고, 그 아래 초가집들은 서원을 수호하기 위해 고용된 제직(齎直)이나 모군(募軍)들이 사는 집일 것이다. 오른쪽 언덕에 있는 기와집 한 채는 청음가의 별서인

듯하다.²⁾

IV. 맺음말

겸재의 「미호도(澗湖圖)」에 그려진 집과 정원을 소유하고 있던 고산 윤선도(1587~1671)와 농암 김창협(1651~1708), 삼연 김창흡(1653~1722)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겸재 정선은 농암의 문하로, 65세에 「경교명승첩」을 제작하였다. 이중 한강변에 자리하던 사대부들의 별서지를 선유하는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있었고 그 중 두 작품이 고산의 경관을 그려낸 미호도이다. 그러므로 미호도에 그려진 서원 앞, 강변 언덕 위의 정자는 윤고산의 명월정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왕숙천변 모래밭 위의 초가집들은 윤고산의 촌사(村舍)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산별서의 유지는 독음산중과 집자리 부근의 조망하기 유리한 장소에 위치하였다. 윤선도의 다른 정원과 마찬가지로 고산에도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자리'를 둔 것은 그의 풍수적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산수문 확인이자, 풍수가요 작성자였던 고산 윤선도가 대하였던 산수자연은 이러한 풍수적 땅 읽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윤선도의 정원을 동시대의 선비들이 소유하였던 별서나 정원들에 비하여 그 규모 면에서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겹겹이 중첩된 산수자연의 공간 안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고, 이러한 장소 안에서 시를 짓고 소요하며 풍경을 향유하였고, 이것은 곧 산수 안에서의 '장소화하기'의 방법이 되었으며 정원을 향유하는 방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고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표상의 변화 및 인위적 지형의 조작 등에 의해 대상지에서의 유적 발굴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며, 단지 사료를 토대로

밝힌 유지(遺址)를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료를 토대로 한 유지의 추측은 객관적 사실에 발굴자의 주관적 의견이 더해진 것이므로 그 정확성에는 한계를 가진다. 관련 문헌자료 및 기록이나 사진, 그림 등의 자료에 의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로서 고산에 있던 또 다른 장소를 찾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 문인의 삶과 그의 정원, 문학작품 등을 통해 그가 지향하고자 하였던 산수자연의 이상향에 관해 이해하고, 그 '장소화하기'의 방법을 읽어 내는 것 역시 다양한 연구방식과 신중한 해석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 1. 나혜영(1999)과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주 2. 최완수(1993)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파주: 범우사.

인용문헌

1. 김신중(2001) 남도 고시가 산책.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서울: 다지리.
2. 나혜영(2000) 조선후기 한양명승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3. 남양주문화원(2005) 남양주시 역사문화길잡이.
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성종상(2003)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성종상(2005)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경연출 기법. 제 43회 환경논총 발표논문.
7.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들베개.
8. 윤승현(1999) 고산윤선도 연구. 고산촌 발견과 고산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서울: 흥익재.
9. 조규화(2006)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10. 최완수(1993)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파주: 범우사.
11. 허균(2002)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서울: 다른세상.
12. 허문정(2004) 보길도 고산 문학정원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황기원(1999) 園治屋宇論 및 立基論 研究: 中國 園林建築論. 환경논총 제 37회 발표논문.